
**2009 KOIMA 북아프리카/유럽 통상사절단
모로코(Morocco) 정보**

2009. 9.

**한국수입업협회
국제통상팀**

목 차

I. 모로코 개황	1
II. 모로코 경제 현황	3
III. 모로코 산업 구조	6
IV. 한-모로코 교역 현황	14
V. 對모로코 한국 투자 현황	16
VI. 모로코 비즈니스 Tips	20

모로코 개황

가. 일반사항

국명	모로코 왕국 (불어: Royaume du Maroc, 영어: Kingdom of Morocco) 현지어: 알 마를라카트 알 마그리비아
위치	아프리카 북서단, 지중해 남서단 (북위 23 - 36 도, 서경 13 - 17 도)
면적	710,850 km ² (서부사하라지역 252,120 km ² 포함 / 한반도의 3.5 배)
기후	북부(지중해성), 중부(대륙성), 남부(사막성)
수도	라바트 (Rabat)
인구	31 백만명(2008 년 기준) - 15 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 16 백만명
주요도시	카사블랑카(360 만 명), 라바트(70 만명), 마라케시(73 만 명), 아가딜(45 만 명), 당제 (52 만 명), 페스(71 만 명)
민족	아랍인(64%), 베르베르인(32%), 유럽, 유대, 흑인계 등 기타(4%)
언어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불어)
종교	이슬람교(순니파: 99%), 기독교(1%)
건국(독립)일	'56.3.2 (프랑스로 부터 독립) 일방적 독립선언을 한 '55.11.18 을 독립기념일로 지정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실권자)	모하메드 6 세(Mohammed VI, Roi du Maroc / '99.7.29 즉위)
입법부	양원제 (상원 270 석, 하원 325 석)
정당	우파(UC, MP) 중도파(RNI, MDS) 좌파(USFP, PI)등 16 개 정당 활동
정부성향	비동맹중립, 대마그레브건설, 아랍 및 아프리카 단결 서부사하라 영토 보전 및 통합

자료: 모로코 통계청, 모로코 정부

나. 경제지표

GDP	815 억 USD (2008 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9.3 % (2007 년)
1 인당 GDP(PPP)	2,368 USD (2007 년)
실업률	9.8 % (2008 년)
문맹률	43 % (2004 년 인구센서스 결과)
평균수명	70.7 세(2006 년)
물가상승률	2.5 % (2007 년)
화폐단위	디람 (Dirham/DH-국제통화표기로는 MAD 로 표시)
환율	US\$ 1 = MAD 8.47 (현찰매입율), 8.55 (현찰매도율) / 2009 년 5 월 4 일 기준
산업구조	제조업(29.0%), 서비스업(58.5%), 농수산업(12.4%) / 2007 기준
교역품	수출: 농수산물, 인광석, 봉제,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 기계 설비류, 전기 및 가전제품, 화학제품, 원유, 원사, 밀

자료: 모로코 통계청, 모로코 정부, IMF

다. 한-모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76) 사증면제협정('93) 이중과세방지협정('99.1) 투자보장협정('99.1) 한모정보통신협력협정('01.5)
교역규모	2008 년 수출: US\$ 390.76 백만 수입: US\$ 173.28 백만
교역품	한국의 수출('08 년): - 승용차 (128,731 천 USD), - 무선전화기 (47,488 천 USD) - 공기조절기 (25,318 천 USD)
	한국의 수입('07 년): - 비금속 광물 (63,012 천 USD) - 나프타 (33,806 천 USD) - 환원철 (19,871 천 USD)
투자교류	18 건 58,200 천불: 2005 년 말 투자기준
교민	교민 250 명 주) KOICA 봉사단 20 여명 2001.12 월부터 정식활동

자료원: 모로코 통계청, 모로코 정부, 무역협회

라. 행정 구역별 인구(괄호: 주요 도시)

(단위: 명)

Taza - Al Hoceima - Taounate (Al Hoceima, Taza, Taounate)	1,810,000
Tadla - Azilal(Béni Mellal et Azilal)	1,450,000
Le Grand Casablanca (Casablanca, Mohammedia)	3,728,824
Marrakech - Tensift - Al Haouz(Marrakech, Essaouira, Kelâa Sraghna)	3,100,000
Guelmim - Es-Smara(Guelmim, Tan-Tan, Tata, Es-Smara)	462,410
Gharb - Chrarda - Beni Hssen(Kénitra, Sidi Kacem, Sidi Slimane)	1,860,000
Rabat - Salé - Zemmour- Zaër(Rabat, Salé, Skhirate)	2,360,000
Souss - Massa - Draa(Agadir, Tiznit, Taroudant, Biougra, Inezgane)	3,200,000
Chaouia - Ouardigha(Settat, Berrechid, Benslima)	1,600,000
Oued Eddahab - Lagouria(Dakhla , Aousserd)	100,000
Laâyoune - Boujdour - Sakia El Hamra(Laâyoune, Boujdour ,Tarfaya et Lmarsa)	256,152
Doukala - Abda(El Jadida, Sidi Bennour, Safi et Youssoufia)	2,000,000
Meknès -Tafilalet(Meknès, El Hajeb, Ifrane, Azrou, Midelt, Khénifra)	2,141,527
Fès - Boumane(Fès, Sefrou, Boulemane, Moulay Yacoub)	1,586,000
Tanger - Tétouan(Tanger, Tétouan, Larache, Ksar Kbir, Chefchaouen, Asilah)	2,470,372
L'Oriental(Oujda, Nador, Berkane, Taourirt, Jerada et Figuig)	1,900,000

모로코 경제현황

가. 2008년 경제실적

1) 경제 개황

2007년 모로코 정부는 곡물 생산 증대, 목축업 및 채소재배의 증대 등에 따른 농업부문이 성장세를 타고 있는 점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제조업, 건설 및 광업 등의 2차 산업부문이 발전하고 있는 점, 관광산업의 활성화, 전기통신산업 및 금융서비스 산업이 강화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약 5.7%의 성장율을 예상하였다.

상반기 중 원유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 성장률 둔화, 하반기의 국제 금융위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경제는 전반적으로 비농업 부문에서 정부의 인프라, 사회개발 등 공공부문투자와 민간부문의 부동산 건설 수요와 지속적 산업투자로 인한 투자 확대, 정부의 행정지출 증대 및 민간소비 강화 등으로 인한 국내 수요에 힘입어 성장률 4.7%를 시현하였다.

성장률은 1/4 분기 6.5%에서, 2/4 분기 5.8%, 3/4 분기 4.3%, 4/4 분기 1.9%로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 물가

globalwindow

소비자 물가는 2007년도 대비 3.9% 인상되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각국의 물가 인상률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높은 국제 규류가, 곡물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식품,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출 확대 등 물가 억제 정책을 시행한 것과 디람화 대 달러화 환율이 강세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식품류가격이 6.8% 인상하였으며, 여가, 문화비 1.8%, 의류비 1.6% 인상 등 비식품류 가격이 1.4% 인상하였다.

정부는 '08년도 21.1억 달러 대비 약 92% 증가한 40.7억 달러 상당을 가격지지 보조금으로 지출하였다.

3) 농업

GDP 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은 생산량이 평년작(2008 년 곡물생산량 : 512 만톤, 2007 년 : 250 만톤, 2006 년 : 916 만톤, 2003-2007 년 평균작 : 600 만톤)에 미치지 못하는 등 '08 년도 -21% 성장의 반동으로 10.5% 성장을 실현하여 전체 GDP 성장률은 1%를 기여하였다.

4) 광업

모로코의 주요 수출부문을 차지하는 인광석은 국제시장 가격이 3 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년도 생산이 극히 부실하여 인광석 수출량이 16.3%(2008 년 1,165 만톤, 2007 년 1,391 만톤) 감소하는 등, 광업부문은 총 -5.1% 성장하였다.

5) 관광업

관광수입은 7 월까지는 2007 년 동기대비 4.9%(약 2 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8 월 이후부터 감소세를 돌아서 8~12 월 기간 중 2007 년 동기간 대비 17.5%(약 6 억 달러)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6)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대부

2008 년 대 모로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민간대부는 42 억 달러로 2007 년(53 억 달러) 대비 21.4% 감소하였으며,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액(35 억 달러)이 전체의 83.2%, 증권투자액(6 억 달러)이 15.2%, 민간대부액(6700 만)이 1.6%이다. 증가세 감소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2009 년 경제 전망

모로코 정부는 세계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해외부문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공공투자 확대, 소비재 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 지출, 소득세 감면 및 가족 공제액 인상 등을 통한 가격 구매력 향상과 신 전략산업 개발 및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도모하고 양호한 기후조건을 기반으로 한 농업부문 고도성장에 힘입은 소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www.globalwindow.org

또한 사회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과 보건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불량주택 개량 및 2013 년까지 매년 15 만개 신 주거단지 건설, 22 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신산업 도약정책, 1 천억 디람(120 억 달러) 부가가치 창출 목표로 추진 중인 농업진흥정책, 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둔 신에너지 전략, 인광석 산업 종합개발, 자유공업지대 및 종합산업단지 개발,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국제경제상황, 제한된 자원과 기후조건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의 취약성, 비효율적인 관료시스템, 만연한 부패와 정실주의 등이 정책추진 및 목표달성에 제약 요인이 된다.

모로코의 수출은 유럽 경제침체 영향으로 대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와 함께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광석 가격의 하락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산물에 비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섬유산업이 큰 타격으로 받아 2008 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인하 영향으로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보인다. 상품, 서비스 수지는 -992 억 디람(118 억 달러, GDP 의 -14.3%)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지는 GDP 의 -5.7%로 확대되고, 실업율은 10.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 정부는 비농업부문 3.9%, 농업부문 22.3% 성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6.7% 달성 목표 내세웠지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3%의 성장을 전망하였듯이 GDP 실질 성장률은 4%대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모로코 산업구조

가. 농수산업

1) 농업

농업은 모로코 산업의 근간이다. GDP 의 15%로 경제성장 및 연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강우량과 일기에 따라 농업 성장이 좌우되고 있다. 전체 농경지는 약 870 만 헥타르이고, 950 만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 전형적인 소규모 영세 농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경지의 85.7%가 관개 시설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 해의 작황은 강우량에 크게 좌우된다. 현대적인 대형 농장의 규모는 약 100 만 헥타르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은 오렌지, 감귤, 포도, 올리브 및 채소류 등이다. 이 중 오렌지, 감귤의 80%, 토마토 등 채소류의 33%가 유럽 등지로 수출된다.

모로코 정부는 불안정한 세계 곡물시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제공 뿐 아니라, 농업을 모로코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농업개발정책인 Plan Vert 정책을 2009 년 4 월 공표하였다. 부족한 관개시설 및 제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0 년까지 700-1000 억 디람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를 하고 있다.

2) 수산업

모로코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3,500Km 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및 어업 기지 라스팔마스 항이 모로코 서부 사하라의 라윤(LAAYOUN)항과 마주 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정어리, 멸치, 고등어, 대구, 도미, 오징어 등이다. 수산업 종사자는 약 10 만 명이다. 모로코 농수산부에서는 연간 어획 가능량을 150 만 톤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적정 어획고를 연간 약 100 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족자원 보호와 수산업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2 개월의 휴어기를 4 개월로 늘렸으며, 유럽 특히 스페인 선단의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유럽 선단의 모로코 근해 조업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산업 현대화 5 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총 60 억 디람(약 6 억 3 천만 불)이 소요되는 이 계획으로 LAAYOUN, TAN-TAN, TARFAYA,

SIDI IFNI 의 항만 현대화와 DAKHLA 의 신 항구 건설에 30 억 디람(약 3 억 1 천 5 백만 달러)이 투자된다. 또한 어업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업 방식 전환, 미 개발 어장 선단 재배치, 선박엔진 (400 마력 이상) 및 어선 현대화(톤수 증대), 냉동시설 신축, 가공 처리 시설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전반적으로 모로코 수산업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어, 오징어 등 수출 고급 어종의 감소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 식품가공업

2007년 기준 모로코의 식품 가공업은 2,016여 개의 업체가 15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이 중 수출 업체는 300여 개이며 70억 디람(7.3\$)의 제품을 수출했다. 전체 식품 가공업 중 정맥, 제분 업계의 생산량은 100억 디람(110억\$), 식품 가공업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하며, 제당 업계가 60억 디람(6.2억\$) 생산, 11.5%의 비중, 유제품 산업이 47억 디람(4.9억\$) 생산, 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상기 생산품들의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소비되며,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과일, 채소, 생선 통조림 등이다. 농업 생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 가공업이 권장되고 있으며, 현대화에 필요한 포장, 가공 기계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1) 특성

모로코 농업 생산량은 그 해의 강우량에 좌우된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의 풍흉 여부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에 따라 모로코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톱날형 모양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 해의 작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모로코의 가공 식품 수출은 과일, 채소, 생선 통조림이 주도한다. 이 분야의 국내 생산비중은 높지 않으나 고급품은 내수보다는 수출하고 있으므로 수출비중은 높다. 모로코 식품 가공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업체의 진출이 활발하다. 유제품의 DANONE, 치즈의 BEL, 생선 통조림의 GROUPE ELITE, 향신료의 BSN AMORA, 화장품용 허브의 YVES ROCHER, 애완동물 동물 사료의 SANDERS, 포도주의 CLARAC ET CLAUZEL, CASTEL, WILLIAM PITTERS, 종자 산업의 GROUPE SNS 등이 모로코 식품 산업 및 관련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2) 진출 확대 방안

모로코 농업의 경우, 강우량에 따라 그 해의 작황이 결정되며, 85% 이상의 농지가 관계 시설이 미비하다. 모로코 정부에서는 관계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므로, 관계시설 관련 워터 펌프 등 기계류의 수출이 유망하다. 단,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모로코 조달청을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므로 조달청 입찰공고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경우, 수산업 현대화 계획에 따른 선박 엔진, 트롤 낚시줄, 냉동 시설 관련 장비, 가공 처리 시설 관련 제품의 진출이 유망하다. 식품 가공업의 경우 제당 및 통조림 산업이 활발하나,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전통적으로 프랑스 업체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신규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 식품산업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는 농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이익이 높은 분야이다. 농산물 가공 및 식품분야는 2000년 이후 매년 6.5% 이상 성장해 왔으며, 이는 전 산업 평균 성장률인 5% 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식품 및 농산물 가공 분야는 전 농업 수출액의 47%를

점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여 Danone, Nestle, Castel and Altadis 가 모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음료 부문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는데 기존의 코카콜라 지배 시장에 펄시가 진입하고 Mecca Cola 및 Zamzam Cola 가 새로 들어오면서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국제적인 유통망과 가공 업체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 수출 시장 개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식품 산업은 중대형 기업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올리브 오일, 포도 및 와인, 신선한 채소 및 야채 등은 모로코 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우수한 품질 및 브랜드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럽 등 시장에서 저가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관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용수 부족, 특히 강우량에 의해 좌우되는 농산물 작황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정적인 식품 산업 발달이 제한되고 있다.

라. 에너지 산업

1) 개황

www.globalwindow.org

모로코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2008 년 원유 수입 규모는 40 억달러로 전체 수입의 9.6%를 차지하였다. 전기 생산은 주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료가 비싸며,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원유를 장기적으로 저렴한 천연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정유 설비 및 공급, 전기 공급 등의 분야를 민영화하였다.

2) 전력

전기 에너지는 모로코 사회 경제 발전에 중대 원동력이다. 인국 증가, 산업분야 중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농어촌을 막론하고 가정 소비량은 매년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07 년도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전년대비 8.9% 증가, 기업 소비량은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의 전력 생산은 20 여 개의 수력 발전소와 10 여 개의 화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2010 년 예상 수요량은 250 억 KWH 로 추산되고 있다.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의 전력청은 1963 년 설립되었으며, 전력공급과 송전, 도시 농어촌 배전을 책임지고 있다. 1996 년 '농촌종합전력화정책' 공표 이후, 2008 년까지 22 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35,000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였으며, 이 중 3,653 곳은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1996 년 전국적으로 22% 뿐이던 농촌전력공급은 현재 95.4%에 달하고 있다.

3) 기타 에너지

2009년 3월 에너지분야 신전략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자가생산력을 향상시켜 신재생 에너지를 2012년까지 총 에너지의 10%, 전력의 18%가 되도록 개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의 태양열 에너지 사용이 2003년도 2% 수준에서 2007년에는 7% 수준으로 상승,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하는 지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태양열 에너지 사용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풍력 에너지는 테투앙 지역에 50MW의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보고 수력 발전, 바이오 매스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 유통업

1) 현황

모로코에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대형 유통 매장이 진출한 것은 10년이 채 안 된다. 지난 1990년에 도입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 카사블랑카, 라바트, 페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르잔(MARJANE)과 메트로(METRO)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마르잔은 모로코 최대 그룹 ONA의 계열사이며, 선진국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CONTINENT, CHAMPION 등 유럽 유수의 하이퍼 마켓을 소유한 PROMODES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오상(Auchan)으로부터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유통망 METRO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현지인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도매 단위로 판매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마르잔과 메트로로 양분되어 있던 모로코 대형 유통 시장에 프랑스 대표적인 유통 체인인 오상(AUCHAN)이 시장 진출을 발표하며 모로코 제 1의 그룹인 ONA와 제휴, ACIMA라는 상호로 2002년 영업을 개시했다. 현재 모로코에는 상기한 3개 대형유통매장 이외에도 ASWAK ASSALAM과 La Bell Vie 등이 영업 중이다.

바. 정보통신산업

1) 시장 개황

모로코의 핸드폰 가입자수가 1천만 명(총인구 3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잠재 사용 인구는 5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모로코의 제2 통신 업체인 Meditel이 유선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Maroc Telecom의 유선전화 시장 독점체제가 무너졌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이 Maroc Telecom, Meditel의 양극체제에서 2005년 말 Maroc Connect가 새로 진출하면서 3극체제로 바뀌었다. Maroc Connect는 그 동안 인터넷 서비스 업체였으나 모로코 최대기업인 ONA그룹이 인수 하면서 막강한 자본력과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2) 통신시장 특징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통신시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기존 통신업체인 Maroc Telecom, Meditel은 각각 프랑스의 VIVENDI, 스페인의 Telefonica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2G 체제하에서 GSM을 사용하고 있어 3G 체제에 서도 같은 방식의 UMTS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도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G 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UMTS 방식 또는 CDMA 방식 선택에 관하여 논쟁이 뜨거웠으나, 이번에 신규 진입할 Maroc Connect는 CDMA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 건설 시장

1) 시장 개황

모로코 건설 경기는 활황 추세에 있으며, 모로코의 전반적인 경기를 선도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2006년 2월말 기준 시멘트 소비는 130만 톤으로서 '05년 2월 대비 5.2%나 증가 하였으며, 대지 가격이나 건설 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모로코의 건설자재는 대부분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시멘트나 유리, 목재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 자재 외에도 대리석, 세라믹, 욕실자재, 전기자재, 알루미늄, 마감재 등의 자재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2) 건설 산업의 영향

모로코 건설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모로코 실업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모로코 경제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 경기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데, 건설은 물론 그림, 유리, 전기, 세공, 수도 공사, 화장실 시설 등이 그것이다.

3) 건설 산업의 발전

모로코의 도시 정비 및 주거지 정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11만 3천 채의 주택을 건설한 바 있다.

2006년 3월 모로코 수상은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된 BTP 전시회(건설 자재 박람회) 개막 연설을 통하여 모로코 건설 경기가 이미 궤도에 올랐으며, 앞으로 건설 경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로코 수상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 지역의 도로 건설 박차: 매년 1,500KM 건설 (고속도로 160KM 포함)
- 항구 및 공항의 시스템 발전
- 관광프로젝트 추진: 2010년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AZUR계획 추진
 - 5억불을 투자하여 6개 해수욕장을 포함한 주변 관광지 건설
- 공공 인프라 건설: 대규모 스포츠 단지, 병원 및 도서관 건설

4) 건설산업 발전 장애요인

2006년 기준 모로코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대부분 탈 농촌 인구들로서 숙련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노동자의 50%이상이 문맹 상태이다. 숙련되지 못한 인력으로는 건설 산업이 선진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익성도 낮으며, 안전 수칙에도 밝지 않아 잦은 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를 리드할 수 있는 간부나 기술자의 양성도 저조하여 간부는 관련 노동자의 2%, 기술자는 2.3%에 불과하다.

5) 건설분야 유망 프로젝트

2006년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중해에 연해있는 Tanger 항구 건설 프로젝트가 18억불 규모의 투자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물류, 도로, 철도,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이 동시에 건설될 예정이다.

여러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건설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7개 지역에 96억불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 투자 계획도 2007년 8월 기준 추진 중이며, Settat 지역에서는 홍수 예방과 지하수 공급을 위한 댐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업체는 일반 건설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건설 업체들이 제3국의 저임금 인력을 고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이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으며, 유럽 업체들은 지리적 이점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모로코와 가까이 있어 모로코 업체와 쉽게 공감대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비 부분에서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 중장비 부품을 비롯하여 전기 기자재 등에서 한국 제품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아. 항공 산업

1) 개요

EU 는 계속 고가화되는 항공부품 및 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저임금이면서 항공산업이 가능한 국가로 동구권 일부 국가와 모로코를 꼽고 있다. EU 항공업체의 모로코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2000 년도부터로 현재 Saffron, Souriau, Sefcam, EADS 등 세계 항공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을 포함해 27 개사가 진출해 있다.

이들 외국업체들은 수년간 엔지니어링, 정밀기계, 표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왔으며, 2005 년도에만 항공분야 투자유치 금액은 6000 만 달러에 달했음. 이에 따라 모로코의 항공산업도 동반 발달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특히 EADS 는 자회사인 AIRBUS 가 직면하고 있는 신종 항공기(A380)에 대한 부품 및 자재 딜리버리 지연과 관련, 모로코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어, 향후 모로코산 부품의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AIRBUS 가 개발한 A380 기종은 각국에서 상당한 주문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 유럽에 흩어져 있는 2000 개 이상의 부품 및 자재 공급업체의 생산 및 재고 관리 등의 문제로 2007 년 납기에정인 항공기의 납기가 전체적으로 1 년 이상 연기될 예정으로 있어 상당한 금액의 페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아울러 유럽산 부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ww.globalwindow.org

이에 따라 AIRBUS 는 2000 여 개에 달하는 공급선을 500 개로 줄여,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아울러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모로코와 같은 저임금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로코 항공산업의 연간 수출규모는 7000 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 1,900 명의 모로코인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엔지니어 250 명, 기술자 1,650 명)

모로코 및 아프리카의 군항공, 민간항공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08 년 제 1 회 마라케시 항공엑스포(격년으로 개최)에서는 모로코 항공산업의 현 주소와 유럽의 선진 항공기술을 선보였으며 모로코와 외국 기업간의 기술협력, 관련 일자리 창출, 제반시설 확충, 정부 지원 등 논의되었다.

2) 모로코 주요 항공산업

모로코의 항공산업은 아직 EU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발달돼 있으며, 모로코 자체 기업은 아직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항공관련 부품은 다음과 같다.

- connector, cable, pods, composites and air duct
- surface treatment
- Repair and maintenance of aircraft engines
- Mechanical research and design
- Structural calculation, resistance analysis and electrical design

관련 업계에서는 EU 항공업체의 모로코 진출로 인하여 2008 년 모로코 항공산업의 매출규모가 1 억 8,000~2 억 4,000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자동차 산업

1) 모로코산 자동차의 수출

모로코의 유일한 자동차 업체인 Somaca 가 최초로 자동차 600 대를 수출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모두 5000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수출 자동차는 모두 디젤로서 수출시장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나타났으며, 5 월 말과 6 월 초에 걸쳐 선적이 완료되었다. 모로코의 자동차 생산은 2006 년에 시작된 것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이처럼 수출의 물꼬를 튼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외에 모로코는 이미 FTA 가 체결된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의 주변 국가에도 수출 예정이며, 이집트에는 올해 낫바들의 수출을 예정으로 현지 시험운행 중에 있다.

2) 모로코의 자동차산업 현황

모로코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300 만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양산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과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로 인해 보유 자동차의 대수뿐 아니라 보유 자동차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모로코 자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으나 Renault 가 지분을 갖고 있는 Somaca 사를 설립한 후 '06 년부터 Logan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Somaca 산 자동차는 동구소재 Renault 공장으로부터 들여온 부품을 모로코내에서 조립만 한 것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에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3) 모로코산 자동차의 경쟁력

모로코산 자동차 (Logan)은 수입차와 비교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Logan (무연/경차)는 8800 달러이며, KIA Piccanto (경차)는 1 만 6000 달러이다. 여기에 '06 년 하반기부터 디젤 차량을 생산하면서 주문량이 적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기간 동안 내수 판매 1 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출에 대비해 Somaca 는 종업원을 추가로 400 명이나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수출차량이 디젤이 국한돼 있지만, Somaca 에서는 Logan 무연차량도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모로코 교역 현황

가. 2007 년 한-모로코 교역 현황

2007 년 한-모로코 교역 규모는 '06 년보다 총 교역규모를 넘어섰으며,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모로코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승용차와 전화기이며, 수입 증가 품목은 비금속 광물, 반도체, 해조류, 비철금속 등이다.

모로코-한국 무역 통계 총괄표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8	390,761	0.1	173,283	64.4	217,479	-
2007	390,287	75.2	105,410	20.7	284,877	-
2006	222,718	7.1	87,322	57.2	135,396	-
2005	207,888	28.1	55,537	35.5	152,351	-

자료: KOTIS

나. 모로코-한국 무역 통계(품목별)

한국의 대 모로코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

품목	2007	2008	증가율
승용차	154,264	128,731	-16.5
무선전화기	82,464	47,488	-42.4
공기조절기	3,289	25,318	669.9
화물자동차	18,798	23,870	27.0
칼라TV	14,673	23,190	58.1
합성수지	11,698	12,545	7.2
폴리에스테르섬유	6,230	9,945	59.6
건설중장비	3,279	8,784	167.9
변압기	24	8,439	35,271.0
기타정밀화학원료	8,883	6,988	-21.3
총 계	390,287	390,761	0.1

자료: KOTIS

한국의 대 모로코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품목	2007	2008	증가율
기타비금속광물	30,597	63,012	106
나프타	21,590	33,806	56.6
환원철	0	19,871	-
개별소자반도체	16,407	14,153	-13.7
동괴및스크랩	6,728	10,950	62.7
직물제의류	3,625	6,360	75.5
집적회로반도체	9,096	5,122	-43.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5,019	4,489	-10.6
기타해조류	2,361	2,869	21.5
기타가죽	1,676	2,106	25.7
총 계	105,410	173,283	64.4

자료: KOTIS

한국의 대 모로코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38%), 무선전화기(13%)이 가장 많으며, 주요 수입품은 인광석(39%), 나프타(21%) 등이다.

모로코에 진출한 LG 전자 및 삼성전자는 모로코의 고급 가전제품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동사의 판매제품 대부분은 제 3 국 진출 공장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한국의 대 모로코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달러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한국에 대해 매년 2 억 5,0000 만~3 억 달러의 무역역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아직 모로코의 제조업 기반이 성숙하지 않아 무역역조를 상쇄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으며, 한국업체의 대 모로코 투자진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對모로코 한국 투자현황

가. 투자동향

2006 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모로코 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5 만 8,202 천 달러이며, 투자 건수는 총 18 건이다. 그러나 2004 년 Rabat 힐튼 호텔이 매각된 이후 현재 남아 있는 투자 건은 LG 전자가 유일하다. 한국 가전업체들의 모로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모로코 정부로부터 한국 기업의 모로코 투자 요청이 거세지고 있으나, 현지 투자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아직 동 분야에서 투자를 고려 중인 업체는 없으며, 최근 건설부문 및 발전소 부문에서 한국 업체의 관심이 높아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모로코-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모로코-터키 간 FTA, EU-모로코 간의 관세인하 협정에 따른 주요 경쟁품목의 관세인하 등으로 한국의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모로코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및 북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모로코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국가들도 모로코를 주요 생산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모로코는 북단의 Tanger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이를 현재 개발 중인 신항만과 연계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대 모로코 투자진출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과제가 되고 있다.

1) 연도별 진출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	10	1,430	8	1,249
1981	4	352	2	108
1982	1	25	0	0
1983	2	165	0	0
1984	0	0	0	0
1985	0	0	0	0
1986	0	0	0	0
1987	0	0	0	0
1988	0	0	0	2
1989	2	2,195	1	1,050
1990	0	545	1	1,145
1991	1	108	1	116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338	0	338
1995	0	0	0	0
1996	1	500	1	50
1997	1	12,000	1	12,000
1998	2	85,220	1	27,610
1999	0	0	0	0
2000	1	14,500	1	14,500

2001	0	449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1	200	1	34
2007	0	0	0	0
합계	26	118,027	18	58,202

주: 2007.7 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업종별 진출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4	87,065	3	28,993
숙박음식점업	1	24,220	1	24,110
도·소매업	3	3,564	3	2,665
농림어업	16	1,928	9	1,348
광업	1	1,050	1	1,050
서비스업	1	200	1	34

주: 2007.7 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투자진출기업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회사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DAEWOO MAGHREB S.A.	1	45,000	1	27,500
DAEWOO MAROC S.A.	1	40,000	0	0
DAEWOO RABAT S.A.	1	24,220	1	24,110
LG ELECTRONICS MOROCCO SARL.	1	2,949	1	2,500
KYMA	1	2,028	1	1,483
ALPHA COMMERCIAL	1	1,050	1	1,050
D' IMPORT EXPORT(ACIMEX)				
DONGSU	1	895	1	895
DAEWOO ELECTRONICS MAROC	1	500	1	50
YU JIN COMPANY	1	200	1	34
DONGWON SOOSAN	1	157	0	0
OYANG SOOSAN	1	135	0	0
SOCIETE DAEWOO MOROCCO	1	115	1	115
DONGWON SOOSAN*	1	110	1	110
K.M FISHERIES CO.S.A.	1	108	1	116

DAEHO WON YANG AUP	1	100	0	0
DAEHO WON YANG AUP	1	100	0	0
MERIT FISHERIES SOCIETE	1	67	1	63
SQUID FISHERIES S.A.	1	64	1	55
SMACOPEH S.A	1	53	1	53
DAEHO WON YANG	1	50	0	0
PEMACO.S.A	1	40	1	40
NAMSUNG WON YANG AUP	1	37	1	10
WOO YANG AUP	1	25	0	0
SOCIETE GENERALE MAROCAINE	1	10	1	10
DE PECHE (SOGEP).				
HAEWAE SANUP	1	8	0	0
SOCIETE SAHARIENNE	1	6	1	6
DARMEMENT ET DE PECH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삼성전자 카사블랑카 지점

1) 기본 정보

- 도시: 카사블랑카
- 주소: IMM ESPACE SANS PAREIL 6eme ETAGE No 62, Lotissement taoufik lot 20-22, Casablanca, Morocco
- 전화: + 212-22-335383
- 팩스: + 212-22-335210
- E-메일: steven.kim@samsung.com
- 대표: 김상현 지점장

2) 주요 현황

- 업종: 연락사무소
- 취급분야: 정보 통신 및 가전제품
- 진출: 지사(Liaison office)/마그레브권(모로코, 알제리, 튀니지)관할
- 진출연도: 2001년
- 종업원 현황: 2(본사파견), 5(현지채용)
- 설립자본금: 없음
- 연간 매출액: 3,500만 달러(서비스/매출액 포함)
- 합작선: Falcon

□ LG 전자 모로코 현지법인/LG Electronics Morocco S.A.R.L

1) 기본 정보

- 도시: 카사블랑카
- 주소: 본사 - Lot No.33 Colline II, Sidi Maarouf, Casablanca
서비스센터- Route Mediouna, Angle Rue Ifni, No.17, A24, Casablanca
- 전화: + 212-22-541616(서비스센터), 212-22-97-3232(사무실)
- 팩스: + 212-22-543543(서비스센터), 212-22-97-3288/3289
- E-메일: jaeyounglee@lge.com
- 대표: 이재영 법인장

2) 주요 현황

- 업종: 서비스(북부아프리카지역) 및 판매업(모로코지역)
- 취급분야: 가전제품, 통신제품
- 진출: 단독법인
- 진출연도: 2000.6.1일부로 서비스판매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전환
- 종업원 현황: 6(본사파견), 70(현지채용)
- 설립 자본금: 200만 달러(2000.6.1일부로 서비스판매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전환)
- 연간 매출액: 1억 달러(2004년)

□ 현대 자동차 카사블랑카 지점

1) 기본 정보

- 도시: 카사블랑카
- 전화: + 212 22 79 86 27 /95
- 팩스: + 212 22 79 85 74
- E-메일: Hyundaimotors@menara.ma
- 대표: 이윤진 과장

2) 주요 현황

- 업종: 연락사무소
- 진출연도: 2006년 2월
- 종업원 현황: 1(본사파견), 2(현지채용)

모로코 비즈니스 Tips

가. 비즈니스 에티켓

비즈니스 상담 시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로코의 문화, 풍속, 관습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자세에서 대화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특히 모로코 역사 속의 세계적 인물, 예컨대 대 여행가인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 중국의 정화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븐 바투타(IBN BATTUTA, 1304-1368)를 화제로 삼아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식사 중이라면 동서양의 음식이나 모로코인이 즐겨 먹는 양고기와 꾸스꾸스(COUSCOUS)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비쓰밀라(신의 이름으로)' 를 중얼거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슬람에서 금하는 음식물인 돼지고기 등을 식사 화제로 삼지 않는다.

대화 중에 극히 한정된 아랍어라도 몇 마디 한다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쌀라무 알라이쿰(안녕하십니까), 함두릴라(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잘되고 있다), 슈크란(감사합니다) 등이다.

친한 사이인 경우 남녀구별 없이 양 볼을 번갈아 가며 살짝 비비고, 다소 생소한 지면인 경우에는 악수를 나누거나 말을 하면서 오른손이나 왼손을 가슴에 가볍게 얹음으로써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다. 사람이 여럿일 경우 보통 오른쪽에 위치한 이부터 차례로 악수한다. 또한 모로코인들은 서로의 안부 및 가족 안부 등도 잊지 않고 묻는다. 다소 길어도 인내한다. 한편 모로코 전통옷을 입은 여성과는 악수 및 볼에 절대 키스하지 않는다.

아랍어의 '쌀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이 이곳의 전통 인사말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알라이쿰 앗쌀람'(당신께서도 안녕하십니까?)이다. 상담 시 무난한 한국산 선물로는 소형 전자제품, 인삼차, 부채, 한국인 탈, 넥타이, 스카프, 달력, 액세서리, 장식물, 비단 등이 무난하다.

□ 문화적 금기사항

이슬람 국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통 이슬람권과는 달리 상당히 개방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슬람권이 금요일이 공휴일인 반면 유럽의 영향으로 일요일이 공휴일이며, 라마단 등 종교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음주가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 차도르를 착용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어렵다. 단, 이슬람력에 따른 종교행사인 금요일 오후 예배, 라마단(금식기간) 등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 중 하나로 이슬람력에 따라 매년 10 일 정도 앞당겨지며, 약 1 개월 동안 계속되는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는 가능한 이슬람권 비즈니스 출장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있는 동안은 음식물 및 담배도 일체 금한다. 해가 지고 나서야 예배를 보고 음식을 섭취한다. 이 기간 중 근무시간은 대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

음식점은 모두 문을 닫아 점심식사를 하기가 곤란하나, 외국인을 위해 일부 호텔 레스토랑은 영업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외국인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대중 앞에서 음식물과 흡연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여자일 경우 화장을 자제해야 한다. 여성과 신체 접촉(볼에 키스 등)을 피한다. 흔히 3 금이라고 말하는 국왕, 체제 및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나. 거래 시 유의사항

1) 즉각적인 회신 기대는 무리

모로코 시장은 대다수의 품목이 전적으로 가격에 의해 구매가 좌우되는 철저한 가격 시장으로 국내 업체의 오피 가격에 네고의 여지가 없다고 바이어가 판단하면 설사 한국산 수입에 관심이 많더라도 회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현지 중소 바이어들은 영어에 약하거나 아예 불어밖에 몰라 불어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게다가 결정권한이 사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장이 부재 중이면 "예스"나 "노"라는 확답을 얻지 못한다. 인콰이어리에 대한 회신율, 신속성과 관련하여 모로코 바이어들은 한국 업체와 대만 업체를 자주 비교한다. 모로코의 중소 바이어들이 불어나 빈약한 영어로, 그것도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양측에 동시에 팩스를 보냈을 때 대만 업체에 비해 한국 업체가 무성의하다는 것이다.

2) 상담 시 유의사항



이슬람국가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모로코 비즈니스맨들도 "인살라"(신이 원한다면)라는 후렴을 자주 붙인다. 본래는 전지전능하신 신 앞에서의 겸허함에서 연유된 것인데, 종종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담 시에 잘 새겨들어야 한다.

모로코인들은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한다. "예스"나 "노"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는다고 다그쳐 봐야 일만 그르친다.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듯이 모로코인들은 "슈이아 슈이아"(천천히 천천히)라는 말을 즐겨 쓴다.